

# 고흥군, 인구 늘리기 '총력'... 민관협의체 출범

### 지역 소멸위기 심각성 인식 고흥 인구 10만명 달성 목표 정주·생활인구 유치 상호협력 인구증대 7개 분야 시책 운영

고흥군 고층읍이 민관협의체 위원 50명을 위촉해 '고흥인구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지역 소멸위기 대응 모색에 나섰다. 민관협의체는 고층읍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층읍(읍장이 성민)이 지난 18일 관내 기관단체장, 이장, 부녀회장, 공직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층읍 인구유치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인구유치 민관협의체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민관이 함께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심

각성을 인식하고 '2030 고흥인구 10만명 달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5월 변영희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기관단체장 18명과 마을 이장 32명 등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민관협의체의 주요 임무와 인구 유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공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돼 인구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위원들은 '인구가 고흥의 미래이며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며, 정주 인구와 함께 생활인구 유치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핵심과제 발굴 △고층읍 인구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 관련 교육·홍보 △마을별 전입 목표 달성 등 인구유치에 관련된 제반 사항 협의와 자문역할을 담



고흥군 고층읍 기관단체장과 이장, 부녀회장, 공직자 등이 지난 18일 '고층읍 인구유치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고흥군 제공

당하며, 인구문제에 대해 수시로 위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민 고층읍장은 "직면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고흥 만들기에 민관협의체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과의 화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양육, 일자리, 귀농어·귀촌 등 7개 분야 100대 시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고층읍은 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발굴, 마을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행복간담회, 귀농귀촌인 온라인 소통창구(젊은동네 고흥읍) 운영 등 자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추가

구례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19개 항목에 더해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2건이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각 500만원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및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된다.

구례군민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 관련 의문사항은 군청 안전교통과(061-780-2741)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 민방위대원 사이버 보충교육 여수시, 내달 5일부터

여수시가 오는 8월5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사이버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교육 대상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20~40세 민방위대원 중 상반기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1300여 명이다.

앞서 실시한 상반기 교육에서는 1만 2084명 중 1만705명이 이수하여 88% 이수율을 달성했다.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이버교육 전반에 대해 95%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 방법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거나 민방위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s://kcmes.or.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수강하면 된다.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교육을 수강하고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폭염 예방 캠페인 펼쳐 보성군 보성읍

보성군은 지난 19일 녹차골보성향토 시장에서 보성읍 직원,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시원한 여름나기 필수품인 쿨토시, 모자 등을 나눠주며 폭염 예방 행동 요령 등을 함께 홍보했다.

폭염 3대 취약 분야 행동 요령에는 폭염 시 야외작업을 멈추고 집에 머물기,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하기,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에는 눈·발 작업 멈추기, 무더위쉼터에서 휴식하기, 충분한 물 섭취 등이 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무더위쉼터(44개소) 운영을 비롯해 취약계층 상시 안부 살피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지난 20일 섬진강 일원에서 구례군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이 래프팅 체험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 구례군, 드림스타트 가족 대상 섬진강 래프팅 체험

구례군이 지난 20일 섬진강 일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부모 24명을 대상으로 '온 가족 운동해(섬진강 래프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3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간의 협동심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가벼운 몸풀기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마치고 래프팅, 물놀이, 다이빙, 바나나보트 등을 체험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방학을 맞은 아동들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가족 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다지게 되기를 바란다"며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신체 성장과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보성군, 맞춤형 우산 대여 서비스 군청·12개 읍면 센터 등

보성군은 지난 5일부터 보성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우산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우산' 대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맞춤 우산' 대여 서비스는 장마철 갑작스러운 비와 여름철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다니며 군민들과 소통하는 김철우 보성군수의 군정 철학이 담긴 시책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됐다.

송민섭 기자

### 고흥군, 귀농어귀촌 설명회 개최 내달 30일 서울 aT센터서

고흥군은 오는 8월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서울·경기권 예비 귀농어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흥군 귀농어귀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네 번째 개최하는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로 귀농어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고흥 귀농어귀촌 행복학교 운영 △귀농어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 등 고흥군 주요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1:1 심층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고흥군 귀농어귀촌 설명회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어귀촌인은 오는 8월29일까지 대한민국 귀농어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https://www.greendaero.go.kr>)'에서 교육 신청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여름철 특별 프로그램 운영

### 내달 23일까지 별자리 관측

고흥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3일까지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천문과학관에 따르면 아직 토성 등 행성은 늦게 떠서 관측이 안 되지만 은하수가 밝게 지나가는 여름 별자리를 관측하기 때문에 은하수를 눈으로 살필 수 있고 기간 중간에는 달이 떠서 달 관측도 가능하다.

8월4일까지는 주간에 방문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에어로켓, 해시계, 태양계 모형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제공한다.

8월10일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철석을 맞아 특별관측회가 마련되며 사계절 중 여름밤에 가장 밝은 은하수를 배경으로 우리 전통 별자리에 등장하는 견우별과 직녀별을 하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간 중 달이 관측되는 시기(8월10~18일)에는 관람객의 핸드폰 카메라로 직접 달을 찍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간 마지막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8월15~18일) 기간은 무휴로 정상 운영된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의 800mm 반사 망원경과 돔 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전시실에는 양부일구 등 고천문 기기와 태양계계통 및 용오름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으며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 모형이 전시돼 있기도 하다.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천문과학관 관계자는 "날씨에 따라 관측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휴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혼잡하거나 관측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란다"며 "9월부터는 토성을, 겨울로 가면 목성을 관측하는 행사 관측의 적기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